

1. 연구목적과 방법 그리고 의의

자연사 연구는 자연/인공 박물관지와 記史, 그리고 유물 및 고대 토층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미 알려졌듯이 고대 자연사 연구는 그 실증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문자가 문화적 수평선 위로 떠오른 이후, 자연사는 미비하지만 기록과 해석의 변증논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고대의 기록은 기록자의 시대적 안목과 지리적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의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그 안에서 채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특히 고대의 記史는 자연사와 인간사, 혹은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뒤범벅이²⁾ 되어 있는데, 이는 거꾸로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의 고대 사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 모습은 주로 탄생설화와 自然觀象에서 나타난다. 탄생설화와 자연관상은 왕의 권위 갖추기와 하늘에서 능력을 부여받은 위정자의 시험대로서 그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왕의 능력은 고대사회의 구성력 여부와 직결되었다. 자연관상이란 자연현상을 흉조 혹은 길조로서 해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재앙은 왕의 무능력에 기원하거나 앞으로의 失政을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 한국에서의 자연재앙은 반드시 자연관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재앙극복을 시도하여 새로운 사회구성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려는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고대 삼국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의 재앙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주력하였다. 고대 기사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안의 실증적 작업을 통해서 재앙과 관련된 기사를 빠짐없이 추렸고, 그 기사를 재앙 별로 그리고 시기 별로 혹은 왕조 별로 분류하여 자연 재앙현상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했다.³⁾ 기사 자료

1) 이 연구는 상지대학교 1998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2) 부정적 표현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3) 이 자료를 필요로 하신 분은 필자에게 연락하면(jdchoi@chiak.sangji.ac.kr) 첨부 파일로 우송해 드립니다.

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동사강목을 종합하여 모았으며⁴⁾, 해석은 동사강목의 주석과 당나라 開元占經⁵⁾을 주로 하고 그 외의 각종 민속자료를 동원하였다. 배불론적이고 실증적 경험주의를 강하게 표명하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많은 기록을 당연히 허황된 표현으로 본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어서, 괴변과 기이한 현상을 적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사 해석에 대하여 지나친 폄하를 하고 있다. 반면에 당나라 때 瞿曇悉達이 모아 적어놓은 開元占經은 괴변과 기이한 현상을 사회적 인간 대소사와 연관시키는 자연관상의 해설서로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 생각된다.

자연의 재앙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대인의 자연관을 살피고자 했다. 그리고 가뭄이나 역질과 같이 재앙현상들 사이의 상관성이 밀접함을 보이고자 했다. 또한 땅에서 일어나는 지변과 괴변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대처방법을 조사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재앙이 고대사회의 정권 유지에 미치는 상관성을 보고자 했다. 넓은 의미에서 고대 한국 자연사와 자연철학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이 원고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재앙 중에서 일식이나 별뚱과 같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재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배제하였다. 왜냐하면 주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구체적인 피해현상만을 다룸으로써 제의적 祈願이나 예측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식과 같은 하늘에 대한 연구는 이미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고려시대 이전으로 그 시기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인간의 재이 대처방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재앙의 사례별로 분류하여 삼국간의 재앙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첫째 한계는 후속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한계는 신라, 백제, 고구려라는 삼국의 지역적 구분보다는 내륙과 해안, 남쪽과 북쪽, 평야와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삼국 사이의 나라별 해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4) 이 연구에 이용된 1차 자료는 대부분 번역본과 상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유 CD Rom임을 밝힌다.

5) (唐)瞿曇悉達(撰), 開元占經,(李克和 校点), 岳麓書社, 1994

저자인 구담실달은 석가(釋迦)와 동명이인으로서 인도에서 건너온 당나라 사람이다.

극히 제한된 사료로 인하여 실증적인 의미분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재앙과 災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없다. 단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祭俗과 정치력의 양상 그리고 민간의 풍속이 자연에 대한 대응방식과 서로 상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다.

2. 재앙별 사기와 그 해석

1) 가뭄

가뭄에 대한 기사는 백제, 고구려, 신라 합쳐서 모두 86건에 이른다. 봄과 여름에 일어나는 가뭄은 직접적으로 농사에 피해를 주었고, 땅이 붉어지거나 한 철이 지나서 곧 백성들의 기근으로 이어진다. 기근으로 인한 현상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거나, 자식을 팔기도 하며, 도둑질 혹은 유랑민이 되기도 한다. 그 대처방법으로는 왕이 스스로 부덕함을 인정하여 사당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있다. 혹은 왕이 스스로 혹은 신하를 시켜 피해를 위문하기도 하고 창고를 풀어 곡식을 내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혹은 사신을 피해지 군읍에 내려보내 죄수들을 가려서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어주기도 한다.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대역사를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나아가 왕 스스로가 백성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평시의 화려한 음식을 줄이는 경우도 생긴다.(832, 신라 흥덕왕)

많은 백성들이 아사할 정도로 가뭄에 의한 심각한 기근현상의 기록은 9회이지만, 일반적 기근현상은 자주 기록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로서 궁실의 창고를 풀어 위문한 기사는 11회이며, 기우제는 7회이다. 이러한 기록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처방법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추상적이며 주술적인 방법이 같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82년 신라 파사왕은 가뭄에 대처하는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파사왕은 다음

의 명령을 내렸다. “지금 나라 창고가 비었고 병기는 무디어 졌다. 혹시라도 홍수나 가뭄 또는 변방에 변고가 생기면 이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의외의 상황에 대비토록 하라.”(삼국사기) 창고를 풀어 백성에게 곡물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창고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러한 농사 장려책으로⁶⁾ 인해 2년 후에 대풍을 맞게 되는데,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추관계를 추측할 수는 있다.

기우제의 방식은 백제인 경우 동명왕의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명산을 찾기도 한다. 후기에는 주로 절에서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신라의 경우 진평왕 50년(628)에 畫龍祭를 지내는 독특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용의 출현은 뒤에 가서 기술할 것이지만, 용과 물 사이의 친밀성으로 인해서 용을 그려놓고 그 용에게 비가 올 것을 기원한 것이다. 민간신앙에서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龍神信仰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면 화룡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농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의미는 생명의 원천이며, 따라서 용을 대상으로 한 의식은 신라의 四海祭(삼국사기 권32)나 앞의 화룡제에서, 후일 고려 때의 四海四瀆祭(고려사 世家42) 나아가 조선의 토룡제 등 궁중과 민간의 기우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15년과 716년 두 차례에 걸쳐 신라에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기우제를 드리자마자 비가 오니 왕이 기쁨에 넘쳐 죄수를 사면하였다. 715년 여름 5월(7월) 큰 가뭄이 들어 왕이 하서주 용명악에 사는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니, 곧 비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 내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가뭄이 있어 다시 이효를 불러 제사지내니(여름 6월) 곧 비가 왔다. 이러한 사실은 배불정책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도 기우제에 대한 믿음과 실행이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조건과 관계 있다고 본다.

6) 이와 유사한 농사장려책이 기사로 된 것이 있다: 144년 신라 일성왕 11년 봄 2월, 왕이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늘처럼 귀중한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밭과 들을 개간하여 넓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간에서 금·은·주옥의 사용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삼국사기)

2) 홍수와 태풍

홍수에 관하여 40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 피해상황은 우선 논밭이 잠기거나, 관가와 민가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를 동반하여 사망자 발생과 전염병이 드는 경우이다. 특이한 경우를 보면 260년 신라 이해왕 14년 40여 군데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골 물이 불어나 50여 호가 떠내려간 경우를 볼 수 있으며, 496년 신라 소지왕 때, 알천의 물이 불어 200여 호가 잠기거나 떠내려간 기사를 볼 수 있다. 큰 사망자가 난 경우로서 535년 고구려 안원왕 여름 가옥 유실과 함께 200명이 죽었고, 589년 신라 진평왕 때 큰 홍수로 3만 호가 침수되어 200여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657년 신라 진덕여왕 가을 홍수로 인해 300여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홍수가 나면 곡식이 익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거주지 유실로 유랑민이 늘게 되고 기근이 심하여 민심이 사나워졌다. 이를 대처하는 왕실의 방법은 가뭄에 대처하듯이 우선 왕이 직접 혹은 사신을 시켜 피해를 방문하여 위로하거나 창고를 풀어 구제토록 하였다. 가뭄 때와 마찬가지로 죄수를 심사하여 사형수를 제외하고 사면하였다. 198년 신라 나해 이사금 때는 수재를 당한 지역에 1년의 세금을 면제하는 세금개선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720년 신라 성덕왕 때 큰비가 내려 13곳에 심한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크자, 왕은 宥司에게 명령하여 그곳 땅에 해골을 묻으라고 하였다. 홍수 등의 재변은 원통하게 죽은 혼 때문이라고 하여 죽은 혼의 노기를 달래기 위하여 해골을 땅에 묻은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제사와 같은 것이어서 이러한 제사는 결국 샤머니즘의 양식으로 볼 수 있다.

태풍만을 따로 기사화 한 것은 다른 재앙에 비하여 적은 24건을 찾을 수 있다. 그 태풍의 위력은 보통 나무가 뽑히거나 부러지는 수준과 기와가 날리거나 돌모래를 날리는 수준이다. 이는 실제로 홍수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이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3) 특이한 날씨

가뭄이나 홍수 혹은 태풍을 제외한 날씨에 대한 기사는 118건이며 그 중에서 눈에 대한 기록을 빼고 우박이나 서리 혹은 때가 아닌 추위나 더위를 기록한 것이 모두 85건이다. 우선 눈이 크게 온 것을 적은 것이 24개의 기사가 있다. 눈에 대한 기사는 주로 한겨울에 최소한 석자 이상의 눈이 온 경우이거나, 때아닌 눈이 온 경우이다. 양력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 때아닌 눈일 경우도 몇 차례 있는데, 그 중에서도 683년 신라 신문왕 3년 계림에는 6월에 해당되는 여름 4월에 한 자나 되는 눈이 온 경우도 있다.

우박 피해는 여러 가지이지만 봄에는 대체로 보리 싹이 크게 상하고 밤알 크기의 우박 때문에 새가 맞아 죽을 정도의 경우도 있다. 여름 우박은 뽕이나 콩과 같은 곡식이 크게 상하여 기근이 들기도 했다. 우박의 크기는 가장 크게 기록된 것이 754년 신라 여름 4월(6월) 달걀 정도의 크기인 것도 있었다. 서리 역시 여름이나 가을에는 막대한 농사 피해를 주었고 서리와 우박이 함께 내려 피해를 준 기사가 8건에 이른다. 전34년 고구려 동명왕 때,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7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색깔과 앞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 외로 안개가 심하여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닷새 만에야 걷힌 경우도 있다. 누린 안개가 심하거나 赤鳥같은 구름이 끼어 해를 가릴 정도는 아마도 황사현상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 겨울 내내 눈이 전혀 안 온 경우도 있는 반면 추위가 너무 심하여 대나무와 소나무까지 얼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801)

4) 황충의 피해

황충의 피해 역시 36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번역서에는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황충을 메뚜기로 번역하고 있다. 그 몇 건도 벼멸구가 전부이다. 그러나 황충을 전부 메뚜기로만 볼 수 없다. 황충의 피해는 주로 메뚜기처럼 큰 곤충으로서 농작물의 알곡이나 대를 갹아먹어 큰 흉작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자세히는 작은 유충의 피해를 일반화하여 황충의 피해로 적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苗心の 속대를 갹아먹어 작물

을 말라 죽게 하는 명충나방의 유충이 있고, 묘목을 잘라먹는 해충으로서 길면서도 가는 해충인 蠹가 있다. 그리고 작물의 마디를 갉아먹는 해충으로서 賊이 있다.⁷⁾ 아마도 황충의 피해는 이러한 유충의 피해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메뚜기와 유충의 의한 피해의 차이는 가뭄과 같이 온 황충은 메뚜기로 해석하면 타당할 것이며, 큰 비 이후로 온 황충의 피해는 유충에 의한 피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황충의 피해를 적은 36건의 기사 중에서 가뭄을 구체적으로 동반한 황충 피해가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황충의 피해 중에서 메뚜기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옳다.

그리고 기사 36건 중에서 남부지방의 황충 피해 기사가 28건이나 되고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8건에 불과해 황충은 주로 온대성 기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황충이 메뚜기 외에 유충이라고 보는 견해의 작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오늘의 작물 유충 피해 현상과 비슷하다는 전체를 두고 한 추측이다.

황충의 피해는 직접 흉년과 연결되므로 나라에서는 이를 대단한 일로 여겼다. 109년 신라 파사 이사금은 황충의 피해가 극심하자,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려 이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없어지고 다행히 흉작을 피해 풍년이 들었다는 기사가 있다. 추측컨대 이는 기우제의 형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이지만, 황충의 위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그 당시에는 황충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황충은 가뭄이나 홍수와 동반되는 가지적인 피해이므로, 가뭄이나 홍수 혹은 기아나 흉작에 대처하는 왕실의 구체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듯이 왕의 사절을 보내 창고를 개방한다든지, 죄수들을 사면하고 일년 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 등이었다.

5) 기근

기근과 기아에 대한 기사는 28건에 해당한다. 물론 백성들의 기근과 아사 현상은 자연의

7) 개원점경, 하권, 1209쪽. “蝗蟲食苗心曰螟, 食苗曰蝻, 食苗根曰蠹, 食苗節曰賊”

재앙현상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기근의 현상은 다음과 같다. 백성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자가 늘며, 곡식이 귀하여 소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며, 다른 나라로 집단 투항하기도 한다.⁸⁾ 아사자가 늘어나서 나라의 곡식도 모자랐다. 816년 10월 신라에서는 집단이 결인이 되어 170여명 정도가 절동 지방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였다. 도적이 느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간단하였다. 곡물 창고를 푸는 일이었다. 왕이 순행하여 위로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707년 성덕왕 6년 신라에서는 기아로 죽는 백성이 많아 곡식을 나누어주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나누어 준 곡식량이 30여만 석이었다. 그 해 봄 2월에는 파종기에 맞추어 종자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기도 했다.⁹⁾ 786년 신라 원성왕은 심한 기근 후에 곡식 33,240석을 내어 구제하였고, 같은 해 겨울에도 다시 곡식 33,000 석을 나누어주었다.

문헌상으로 간혹 사람들이 자식을 팔아 연명하거나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중시해야 한다. 동사강목의 저자인 안정복은 이를 두고 천륜을 모르는 미개인의 짓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는 강한 배불론자로서 불교에 대한 업신여김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에 반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이다. 755년 신라 경덕왕 14년 때,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몹시 굶주렸다. 웅천주의 향덕이라는 사람이 가난하여 그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었으므로, 자기의 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였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선물을 후히 주고 동시에 효자문을 세워 표창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6) 역질

역질에 관한 기사는 모두 27건이다. 역질이 어떤 병종 이었는지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없

8) 489년 백제는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간 자가 600여호에 이르고, 이어서 498년 기근으로 인해 2000여명이 고구려에 투항하였다.

9) 종자를 배급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장기적인 기아를 구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와 북한의 기아대책으로서 종자보급을 우선하는 일로 보아, 신라의 대책은 선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으나, 수해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과 두창 전염병이¹⁰⁾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질에 앞서는 자연적 현상은 주로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그에 따른 기근이 으뜸이며, 그 외 북숭아와 오얏나무의 비정상적인 꽃이 피는 현상이 앞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신라 203년; 신라 833년) 그리고 역질에 따른 사회적 현상으로서 우선 사람과 재물의 약탈(백제 229년), 외부의 군사적 침입(고구려 377년), 대규모의 사망자 발생과 자식까지 팔고 다른 나라로 유랑민이 되기도 한다. 궁예의 환란이 심한 때(918년), 기근과 역질이 심하여 세포 1필, 쌀 5승에 자식과 함께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흉년과 기근이 심할 때 자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흉흉한 인심의 극도를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겨울 역질의 기사가 7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가을 극심한 가뭄에 이어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겨울 역질과 가뭄에 따르는 간접적인 양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침입이다. 역질에 따른 기근과 흉흉한 인심, 나라 왕의 정치적 쇠약은 다른 나라 군사 침입의 기회이며, 길이 질지 않아서 수레바퀴가 잘 돌아 외부의 침입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03년 겨울, 신라의 큰 역질이 돌 때 말갈이 침공했으며, 229년 겨울, 백제의 역질이 일 때 말갈의 군사가 침입하여 백제가 대패한 적이 있었다. 377년 겨울, 고구려는 가을부터 극심한 가뭄과 눈없는 겨울이 지속되고 따라서 역질이 심하게 나다니, 이에 백제 근구수왕이 대규모의 군사 3만을 끌고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역질에 대한 의료 구제책은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하여 창고를 개방하거나 사방(10道)에 특사를 보내 위문을 하는 정도였다.(신라 747년, 경덕왕)

7) 지진

지진에 대한 기사는 모두 97건을 볼 수 있다. 이는 홍수나 가뭄에 대한 기사보다도 훨씬

10) 성무천황 천평 7년 을해乙亥 (기원후 735년), (「속일본기」 권12, 「일본질병사」)

“여름과 가을에, 완두장을 앓다가 요절한 사람이 많다. 신라국에서 전래되고, 축자에 일어나 동방에 만연되고 수도京師까지 이르렀다. 결국 천하에 두루 퍼져, 한 아이가 이것에 걸리면 한 마을 모두가 감염되었다. 마치 옷으로 땅을 쓰는 것 같아, 상창裳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재인용:三木榮, 「朝鮮醫學史 及 疾病史」 22쪽)

많은 것으로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연히 이러한 지진 자료는 지진계에 의해서 탐지되는 계기지진(instrumental earthquake)과 달리 문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역사지진(historical earthquake)으로서 그 지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역사지진의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가옥의 거동과 손상의 상태 및 규모, 그리고 땅의 변화와 물길의 변화 정도이다. 한국지진공학회의 최근 연구논문에 의하면 역사지진 중에서 진도 7 이상의 진도로서 추측 가능한 지진 발생율이 삼국시대까지 모두 17건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

땅이 함몰하는 진도 7 이상 가는 지진의 피해는 다양하다. 우선 가옥이 기울거나 쓰러져서 사람이 죽거나, 우레를 동반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땅이 갈라지고 샘물이 치솟는 경우가 있다. 땅이 갈라져서 그 틈이 2장이나 되어 그 사이로 혼탁한 물이 솟아오르기도 하였다. 반면에 지진이 일어나 원래 있었던 우물과 샘이 모두 마르기도 했다. 19년 고구려에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 인심이 매우 흉흉하여 죄수를 사면하였고, 380년 여름 백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땅바닥이 갈라졌다. 그 깊이가 다섯 길, 넓이가 세 길이나 되었는데 3일만에 땅이 다시 붙었다. 609년 겨울 신라에는 길으로는 지진으로 보이나 추측컨대 별뿔이 떨어진 자리로 짐작되는 사기가 있는데, 땅에서 불이나 불탄 자리의 넓이가 4보, 길이가 8보, 깊이가 5척이나 되었고 3월에 시작된 불이 12월 중순이나 되서야 꺼졌다고 한다. 땅이 갈라질 정도의 큰 지진은 89년(백제), 380년(백제), 471년(신라), 609년(신라), 779년(신라)에 발생하였으며 다른 자연 재변과 함께 하여 인심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삼국이 공존하던 660년까지의 나라별 지진 빈도수를 보면 신라가 22건, 백제가 17건, 고구려가 19건으로서 고대 한국에서의 지진발생지 분포는 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러나 지진의 강도를 비교해서 볼 때, 강진이라고 여겨지는 분포는 신라가 8건 백제가 3건 고구려가 1건에 해당되어 동남해안 지역에 강진이 많은 것으로 추

11) 이기화, “서울 수도권 일원의 지진위험 분석(1)”,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4호(1997), 34쪽

이기화, “한반도의지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13차 공동학술강연회 논문집(1997), 86-99쪽

서정문, “역사지진의 진도추정을 위한 초가삼간의 내진성 평가실험”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5호 (1998년3월)

12) 비교기준을 시간적 기록 균형이 깨지는 백제멸망의 660년이 아니라 통일신라까지로 본다면, 신라의 지진 기사는 59건 백제는 17건, 고구려는 18건이 된다.

측된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강진의 기준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으나 대체로 사람이 많이 죽거나 땅이 갈라지는 진도 7 이상의 것을 강진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 강한 강진이라고 추측되는 것으로서, 779년 신라 혜공왕 15년 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이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779년의 지진 때 금성이 달 안에 들어가는 부분 금성 월식이 일어났다. 아마도 이러한 천체현상과 지진의 괴변을 정서적인 인과관계로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백좌법회를 열도록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지진에 대한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월등히 많지만, 실제로 지진발생에 따른 별도의 피해상황이나 대처방식을 소상히 적은 기사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지진의 공포가 크다고 해도 실제로는 지진의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 간략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진의 피해는 실제적인 피해라기 보다는 백성들의 정서적인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를 들어보자. 664년 10월 신라에서 비교적 큰 지진이 일어났다. 민가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경주뿐만이 아니라 남쪽까지 피해가 있었다. 이에 백성들은 지진의 두려움에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게 되었으며 막대한 재물과 토지를 시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인 피해에 따르는 결과라기 보다는 기복에 의한 주술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서도 이를 우려하여 큰 재물과 토지를 함부로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8) 용의 출현

고대 기사에서 특이한 것은 용의 출현이다. 용의 출현을 적은 기사는 모두 16건에 이른다. 그 색깔로 볼 때 푸르고 붉은 황룡과 검은 용이 보이고, 출현 장소로 볼 때 우물이나(7건) 연못(2건), 강(2건)에서 혹은 바다에서 출현한다. 개체수로 볼 때 하나 혹은 두 용이 함께 출현한다. 용의 출현은 대부분 홍수나 폭풍이 동반되는 시기와 일치하거나, 극심한 가뭄에 기우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특히 우물(井)에서 출현하는 용은 반드시 태풍이나 홍수를

동반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龍神信仰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628년 신라 진평왕 50년에 있었던 畫龍祭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일반적인 기술방식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용과 관련된 기사에서도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용을 신화-상징적 요소로서 혹은 왕권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처용가에서 등장하는 용은 왕의 은덕에 대한 보답을 하는 과정을 기술하여, 용의 의미를 문학적 대상으로 올려놓았다.¹³⁾ 또한 신라 진성여왕의 막내아들이 당에 가는 것을 호위하는 역할로서 두 마리의 용이 등장한다. 당나라에서는 용의 호위를 받고 신라에서 온 사람의 비범함을 인정하여 후한 대접을 하였다.¹⁴⁾ 또한 용은 탄생설화와도 연관되고 있다. 신라 30대 무왕의 경우가 그러하다. 후일 무왕이 된 서동의 어머니는 일찌기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바로 무왕이 되었다.¹⁵⁾ 이와같이 용은 흥조의 대상에서부터 왕권과 관련된 최고 권력의 상징적 지위를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징조의 내용과 관계 없이 물과 연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9) 괴현상

괴변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말이 소를 낳는 일,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하는 일,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떼지어 싸우는 일, 뱀새가 황새를 낳는 일, 연못에서 불길이 밤새도록 타는 일 등이 있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을 적은 기사는 괴변의 정도를 판단하는

13) 삼국유사 「처용랑 망혜사」편 중에서:

제49대 헌강대왕 때에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이어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가 길거리에서 끊이지 않고 비바람은 사철 순조로웠다. 이때 대왕이 개운포에 놀러 나갔다가 곧 돌아오려하면서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을 정도였다. 괴상히 여겨 좌우에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므로 좋은 일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해당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하였다. 왕명이 이미 내려지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그래서 개운포라 이름지었다. 동해의 용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가운데 자식 하나는 임금을 따라 서울에 와서 정사를 보좌하였는데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14) 삼국유사 제2권, 진성여대왕 편

15) 삼국유사 제2권, 무왕 편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95에서 100건에 이른다. 괴변의 대부분은 흉조와 연관되거나 길조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많다.¹⁶⁾ 또한 삼국시대에는 어떤 나라 혹은 왕에게 흉조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혹은 다음 왕에게는 길조가 되기도 하여,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60년 8월 백제에서 일어난 괴변을 보자. 백제 왕흥사의 여러 중들이 모두 배의 돛대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들사슴 같은 개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사비하 언덕에 와서 왕궁을 향하여 짓더니 잠시 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서울의 모든 개가 노상에 모여서 짓거나 울어대더니, 백제가 망한다는 귀신의 곡성이 끊이지를 않았다.

10년 고구려 유리명왕 29년 여름, 모천에서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떼지어 싸우다가,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검은 것은 북방의 색깔이니, 북부여가 파멸될 징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당시 오행사상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푸른 소나 흰 노루, 황룡은 상서로운 것으로 보았으며 검은 개구리, 검은 용 등은 대체로 흉조로 여긴 것으로 보여진다. 흰 무지개나 푸르고 보라 빛나는 구름은 매우 좋은 길조로 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검은 구름은 흉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흰 사슴은 길조이나 흰 여우는 매우 불길한 흉조이다. 659년 백제의 서울에서는 여우가 왕궁에 들어와 그 중 흰 여우 한 마리가 佐平 書案에 올라앉았다. 태자궁에서는 암탉이 참새와 교미하고, 궁중의 느티나무가 마치 사람이 곡을 하듯 울었다. 밤에는 귀신이 궁의 남쪽에서 곡을 하는 등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하여 나쁜 징조로 보았다. 그리고 640년 가을 신라에서는 노랑 색의 꽃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색깔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¹⁷⁾ 822년 봄 신라 서원경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는데, 9일째 흰 색·검은 색·붉은 색의 세 가지 벌레가 눈밭을 기어다니다가 햇볕이 나자 사라졌다는 괴이한 기사도 있으나

16) 申滢植,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6), 73쪽

신형식은 그의 책에서 “천재가 전부 흉조는 아니었고, 도 흉조가 동시에 길조도 되기 때문에 朴星來, 井上(秀雄) 양인의 구분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하여 자연변이현상과 길흥의 징조를 결정론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성래의 자연변이현상과 길흥조 대비는 상징적 차원에서 대비시킨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17) 그 외로 641년 가을 신라 동해안의 물이 붉게 변하고 더워져서 고기가 죽었다는 기사와 644년 겨울 고구려 평양에 붉은 색의 눈이 내렸는 기사를 볼 수 있으나 색깔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오늘날의 적조현상이나 황사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색깔의 의미를 오행사상과 연관시키기에는 자료가 매우 미비하다.

가축에 대한 괴변 기사도 많다. 7년 백제 온조왕 25년 봄 왕궁의 우물이 엄청나게 넘쳤다.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다. 머리는 하나였으며, 몸은 둘이었다. 이에 점치는 자가 말했다. “우물이 엄청나게 넘친 것은 대왕께서 융성할 징조이며, 하나의 머리에 몸이 둘인 소가 태어난 것은, 대왕께서 이웃 나라를 합병할 징조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마침내 진한과 마한을 합병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당시에 정치행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왕권 유지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괴현상 중에는 과학이 발전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괴현상이 아닌 것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심한 황사현상이나 적조현상 등이 그것이다. 황사현상 중에는 몇일 동안이나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누런 안개가 끼거나 해를 가릴 정도의 붉은 구름인 경우가 있으며(신라 298; 고구려 300; 백제 327), 사막의 흙먼지가 대류에 의해 비와 함께 흩비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신라 173; 백제 379; 신라 389; 백제 606; 고구려 656; 신라 770; 신라 780) 그리고 적조현상으로 추정되는 기사를 들어보자. 신라 641년 동해의 물이 붉게 변하고 더워져서 물고기가 때로 죽는 일이 발생했으며, 660년에는 평양의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기도 했으며 같은 해 백제의 사비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기타: 신라 738; 신라 804)

그 외로 지진이나 해일로 여겨지지만 매우 특이한 현상을 보인 것을 괴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또한 지진의 징조로 추측할 수 있는 동물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기사를 보자. 648년 고구려에서는 노루와 이리가 때를 지어 강을 건너 사흘 동안이나 서쪽으로 대이동한 경우가 있었으며, 660년 6월(여름 4월) 백제에서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으며, 769년 겨울 신라에서는 치악현에서 쥐 8천여 마리가 평양 방향으로 대이동하기도 했다.¹⁸⁾

그 밖에 기형아나 기형가축의 탄생을 기이하게 여겼으며, 세 발 이상의 물고기가 물에

18) 그러나 전자의 경우, 그 때에 맞춘 지진의 기사를 볼 수 없다.

나와 죽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노파가 남자로 변하거나(백제 BC6년) 노파가 여우로 둔갑하는 등의(백제 499) 사람이나 동물의 둔갑, 이상한 새들의 출현, 뱀새가 황새를 낳은 일(신라 379), 뿔이 달린 물고기(신라 416), 때 아닌 눈이나 꽃이 피는 일은 항상 사회적 징조로 보았으며, 대부분의 괴현상은 흉조로 연결되었다.

징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검은 개구리 떼의 출현을 보고 검은 색과 북방을 연결하여 북부여의 멸망을 징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고구려 10), 백제 25년 백여 마리의 기러기가 궁궐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짐치는 자가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이므로 장차 먼 곳에서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언하였다. 신라 350년 봄 3월 황새가 월성 모퉁이에 둥지를 트니,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두고 물난리가 곧 날 징조로 보았다. 실제로 그 다음 달에 큰비가 열흘에 걸쳐 내리니 평지에 물이 석자나 고이고 관가와 민가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13 곳에서나 일어났다. 640년 고구려 영류왕 때 가을 9월 고구려에서는 햇빛이 없어졌다가 사흘 후에 다시 밝아진 일이 있었다. 후일 동사강목의 저자는 권근의 해석을 빌어 이 현상을 두고 “태양은 모든 양의 으뜸이요 임금의 상징인데 3일 간 빛이 없었으니 그것은 권개소문의 시역의 징조가 이미 나타난 것이다. 고구려의 군신은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근심을 미연에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애석하다” 고 했다.

나라의 멸망과 직접 관련된 흉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수 많은 괴현상들이다. 백제 멸망 한 해 전부터 괴현상이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59년에는 흰 여우가 佐平 書案에 올라앉았거나, 태자궁에서는 암탉이 참새와 교미하고, 궁중의 느티나무가 마치 사람이 곡을 하듯 울었다. 밤에는 귀신이 궁의 남쪽에서 곡을 하는 등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660년 여름 4월에는 두꺼비 수 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모인 것에 사람들이 까닭도 없이 놀래 달아나니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도망가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1백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셀 수도 없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봄 2월에는 서울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서해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으며 사비하의 물이 핏빛처럼 붉었다. 5월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와 도양사의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한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공중에서 동서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듯하였다. 이 기사 모두는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흉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길조 혹은 흉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사도 많다. 관습적인 흉조가 길조로 변할 수도 있고 그 거꾸로인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660년 6월에는 귀신이 나타나 대궐 안에 들어 와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고 크게 외치다가 곧 땅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하니 석자 가량 파내려 가니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글이 있었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말하기를 “둥근 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며, 초승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된다.”고 하니 왕이 노하여 그를 죽여 버렸다. 어떤 아첨하는 자가 말하기를 “둥근 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나라는 왕성하여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하여 간다는 것인가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이 때는 이미 의자왕의 판단이 흐려진 때였다.

3. 결론

복숭아와 오얏 꽃이 때아닌 때에 핀 사실에 대한 기사의 수는 모두 10 회로서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10회의 기사 중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겨울 10월에 때아닌 복숭아와 오얏 꽃이 핀 사실이 9회이며 763년에는 초가을에 두 번째 꽃이 핀 사실을 기사 하였다. 이 중에서 역질과 때를 같이 한 것이 3회이며, 지진과 함께 한 것은 1회, 서리나 태풍 혹은 겨울에 눈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따듯한 겨울날씨가 3회이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복숭아와 오얏의 발화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상 자연현상의 징표로서 중시되어 왔다.¹⁹⁾ 오얏 꽃의 이상발화는 날씨의 변화와 관계 있으며, 따라서 이는 반드시 동반하는 자연재해를 가져온다. 또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등장하며

19) 복숭아와 오얏은 다른 나무와 달리 개나리가 갖는 온도 민감성 이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발화시기에서 기온과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후지표 식물이다.

그 피해와 대처방안의 미비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 災異 현상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고통조와 연관되는 상징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근거가 된 사료의 특성상 자연재해와 정치사회적 변화의 인과관계를 쉽게 볼 수 있다. 앞서 예로 들은 복숭아와 오얏은 한 실례일 뿐이며, 재앙과 관련된 고대 사기 전반의 특징은 자연재해와 정치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南解次次雄 19년에서 21년에 이르는 역질과 겨울의 이상온기, 매뚜기 때의 극성은 곧 왕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효성왕 6년의 지진과 왕의 죽음, 소수림왕 7년 겨울 이상기온과 역질, 그 기회를 틈탄 백제의 침공, 다음 해 그에 이은 가뭄과 서로 잡아먹을 정도의 기아 현상은 왕의 죽음으로 이어졌다.²⁰⁾ 근구수왕 6년에도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와 함께 왕이 죽었다. 물론 모든 자연재해가 왕의 교체와 직접 연관된다는 자료는 없다. 대부분의 자연의 재앙의 시기와 왕의 죽음의 시기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이고 추측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 글은 처음에 밝혔듯이 천상에 관련된 기사를 빼고, 지상에서 일어난 자연변이만을 다루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연변이와 정치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는 일은 지상의 변이보다는 천상의 변이와 연관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다. 유성이나 혜성, 그리고 태양의 흑점이나 행성의 이상현상, 일식이나 월식과 같이 당시로서는 기이한 하늘의 변이현상들은 그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이에 따라 주술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늘의 현상은 결정론적인 해석에 따른 왕권의 성립이나 멸망과 관련된 예측적 징후론이 주된 경향이다. 반면에 지상의 자연변이는 정치사회적 징조와 결정론적으로 단순히 연결시키는 일에 그칠 수 없었다.

고대 재앙사기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자연변이와 정치사회적 변화 사이의 초자연적 징후론이 아니라, 그 자연변이를 맞았을 때 그에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이 자연주의에 근거한 인과론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한 사회가 보여주는 대처방식은 응전의 논리로서 발전하며

20) 申瑩植,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6), 73-5쪽 참조

응전의 사회화가 곧 그 사회의 정치적 성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처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상의 자연변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맞추어 앞에서 든 10 가지의 자연재앙의 기사와 해석은 주로 그 재해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재앙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었다.

- 1) 백성의 고통을 왕이 함께 하려는 태도였다.
- 2) 피해지 방문을 통하여 백성의 곤란함을 직접 듣거나 신하를 시켜 窮恤케 하였다.
- 3) 창고를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4) 장기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과중기에 맞추어 종자를 적절히 나누어주었다.
- 5) 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 6) 기우제를 드린다는가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특별한 제사를 지낸다.
- 7) 수해지역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하여 일년간 세금면제를 하는 등의 세계개혁을 단행한다.
- 8)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잃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에게 효자문과 같은 왕의 위민(爲民)정책을 편다.
- 9) 왕 스스로가 백성의 곤궁함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화려한 음식을 피한다.
- 10) 현재 진행 중인 대역사를 일시 중지하고 인력을 재난극복에 힘쓰도록 한다.
- 11) 평상 시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재난 시 외부로부터의 군사침입에 대비토록 한다.
- 12)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큰 재물과 토지를 함부로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기도 한다.

자연현상을 개인의 대소사의 징후와 연관시키거나 사회적 길흉조와 연관시키는 일은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지리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재이의 원인을 인간에게 부여하며, 그리고 그 원인발생에 대한 상벌자로서 그리고 원인무효를 위한 祭儀의 수혜자로서

절대자를 상징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절대자의 상징체는 구체적 자연물에서 출발하여 추상적 개념체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인류집단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는 추상도의 정도가 높은 신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의 신 개념과 쉽게 조우하였다. 반면에 이 연구결과에서 보듯 한국의 고대 재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성에 바탕을 둔 직접적 자연주의의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료 중에서 주술적인 대처방식도 자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대처는 인간의 구체적인 노력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주술적인 대처방식마저도 초자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해극복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²¹⁾

이 연구에서 고대 재앙사에 나타난 흉조와 길조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에 근거함을 강조한다. 즉 해석의 틀을 정령론인가 아니면 개념화된 절대자인가의 논의 범주에 두고서 한국 고대재앙사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재앙사 해석은 신격화한 절대자를 도입하여 초자연주의를 따르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운행방식과 인간사의 운행방식이 같다고 보는 자연주의의 해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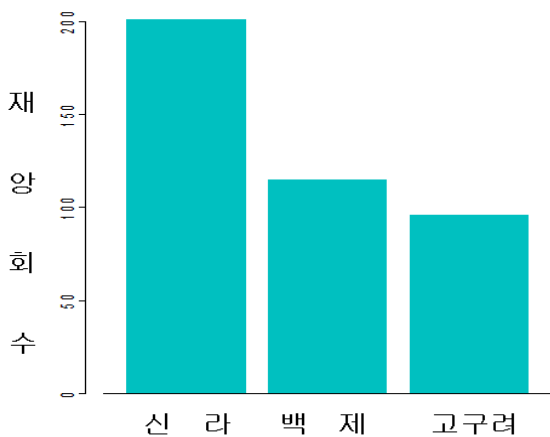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역질의 전염범위는 국소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상기온의 결과는 지리적으로 근접된 삼국을 포괄한 재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삼국을 인위적인 경계선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하여 재앙해석을 하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단지 평야, 해안과 산악의 지리적 차이에 따른 재앙해석은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삼국 사이의 재앙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해야 하며, 재앙의 현상들 사이에도 인과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어본다. 장기적인 심한 가뭄은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따라서 농사수확이 떨어져 기아를 초래하고 기아는 집단적인 이주의 원인을 초래하며 이는 난민에 의한 도둑질이 횡행하여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왕권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해 뿌릴 씨앗이나 창고곡물의 보관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세금이 걷히지를 않아서 궁중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왕의 근심을 낳게 하여 왕의 죽음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

21) 서구의 입장에서 주술적인 것을 본다면 정령론(animism)이나 샤머니즘의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정령론이나 샤머니즘을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세계해석으로 보는 일은 한국의 자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구적인 기준으로 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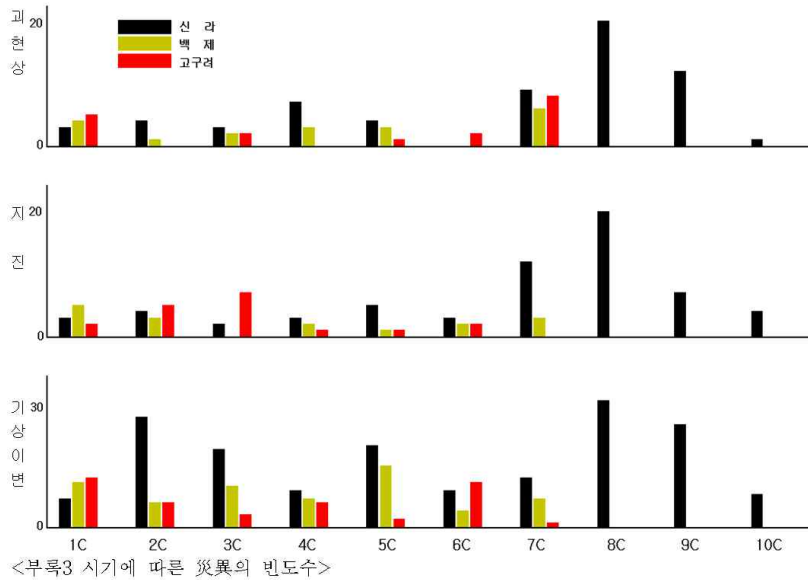
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극심한 가뭄과 왕의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인과의 끈을 무시한다면 위의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초자연주의거나 추상적 절대자와의 일방향적 관계로 볼 수 있지만 과정의 인과관계를 모두 볼 수 있다면 자연주의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

<부록표1> 시기별, 나라별, 재앙별 재앙횟수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계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신라	신라	
가뭄	4	5	1	6	2	1	6	5	1	4	3	1	5	7	0	4	1	3	4	4	0	11	6	2	86
홍수	3	1	4	8	2	0	6	2	0	3	1	1	8	3	1	1	2	4	3	1	0	5	4	1	64
이상기온	0	5	7	13	2	5	7	3	2	2	3	4	7	5	1	4	1	4	5	2	1	15	15	5	118
지진	3	5	2	4	3	5	2	0	7	3	2	1	5	1	1	3	2	2	12	3	0	20	7	4	97
괴현상	3	4	5	4	1	0	3	2	2	7	3	0	4	3	1	0	0	2	9	6	8	20	12	1	100
역질	1	2	0	3	0	0	1	1	1	1	1	1	2	1	0	0	2	1	0	0	0	3	5	1	27
나머지	3	0	3	5	0	1	5	4	1	5	3	3	8	4	2	2	1	6	0	1	0	10	10	1	78
소계	17	22	22	43	10	12	30	17	14	25	16	11	39	24	6	14	9	22	33	17	9	84	59	15	570
합계	61			65			61			52			69			45			59			84	59	15	570
7세기까지의 나라별 재앙횟수							신라						백제						고구려						
							201건						115건						96건						



<7세기까지 삼국의 재앙 횟수>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한국사자료연구소(1996), 「삼국사기 CD 96」, 한글과 컴퓨터.

일연, 「삼국유사」 박성봉/고경식 역(1994), 서문.

安鼎福, 동사강목, 민족문화추진회 역(1989), 「국역 동사강목」 I-III, 민문고.

金斗鍾(1981), 「韓國醫學史」, 탐구당.

金斗鍾(1982), 「韓國醫學文化大年表」, 탐구당.

三木榮(1963), 「朝鮮醫學史 及 疾病史」, Osaka Prefecture.

(唐)瞿曇悉達(편), 「開元占經」,李克和 校点 上下 (1994), 岳麓書社.

申滢植(1986),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국사편찬위원회(1986), 「韓國史論1」, 고대편, 민족문화사.

윌리엄 맥닐(허정 역:1992),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박성래(1978), "Portents in Korean History",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47 (1978), pp.32-90

이기화(1997), "서울 수도권 일원의 지진위험 분석(1)",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4호 (1997)

이기화(1997), "한반도의 지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13차 공동학술강연회 논문집* (1997)

서정문(1998), "역사지진의 진도추정을 위한 초가삼간의 내진성 평가실험"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5호(1998년3월)